'한국음식문화 박물지' 황교익 지음

삼겹살은 어떻게 '국민메뉴'가 되었을까?

한국인이 가장 즐기는 육류는 돼지 삼겹살이다. 삼겹살은 고기 부위를 말하기도 하며 음식 이름이기도하다. 돼지고기는 1970년대 초반만 해도 삶는 게 보통이었는데 식당에 프로판 가스가 공급되면서 구워 먹기 시작했다는 게 정설이다. 굽다 보니 지방이 많은 부위가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부위만 따로 떼어 팔면서 삼겹살 구이 문화가 뿌리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겹살이 '국민 외식메뉴'가 된 것이 맛 때문만은 아니다. 삼겹살은 비싼 쇠고기 대신 먹을 수 있는 고기, 소비자가 중산층임을 확인시켜 주는 고기라는 점을 새겨둘 필요가 있다.

'한국음식문화박물지'에 나오는 삼겹살에 관한 이야기다. '맛따라 갈까보다' '미각의 제국' 등을 낸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49)씨가 한국의 현재 음식문화를 찬찬히 살핀다.

한국음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한국인이 무엇을 먹는지 제대로 봐야 한다고 말하는 저자는 한국인이 즐겨 먹는 음식을 열거하며 이를 설명하고, 음식에 반영된 한국인의 정서와 삶을 되돌아봤다.

저자는 부자들의 발길을 끌어들인 '가든'의 소갈비구이, 시내 번화가인데도 실내 인테리어를 선술집 분위기로 꾸며 서민음식 이미지를 내세우는 닭갈비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계층구조와 그에 따른 욕망의 흐름을 짚어본다.

우리 음식이 이웃나라의 음식과 섞이면서 바뀌어온 과정도 설명했다.

저자는 "이웃의 음식을 먹으며 내 음식이 바뀌고 또 그 이웃의 음식이 바뀌는 '섞임의 연속' 안에 우리 음식이 있다"고 말한다.

밥과 반찬으로 이뤄진 한·중·일 상차림의 유사성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짜장면과 호떡이 우리 음식이 되고, 일본의 다쿠앙이 단무지로 식탁에 오르는 예를 들며 이를 증명한다.

한편, 이런 한국의 밥상문화는 손님접대용 고급음식인 한정식으로 발달했고 서민들의 외식음식인 백반으로 진화했다. 또 남도음식이라는 이름으로 전라도의 밥상을 특화시키기도 했다.

밥상문화의 중심에 서 있지만 지금은 변형되어 버린 밥그릇의 모양이나 음식을 찢어 먹기 좋도록 진화해온 금속젓가락, 탕이나 국밥류의 중심에 있는 숟가락 같은 도구의 변화 역시 한국인의 음식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밖에 1960~1970년대 가정식으로 적극 권장했던 햄버거, 미군부대를 통해 처음 소개된 비싼 피자, 더 맛있다는 마케팅을 펼쳐 국산 콜라의 싹을 잘라버린 코카콜라, 손탁이란 독일계 러시아 여자가 소개한 이후 고종이 마니아가 됐다는 커피 등이 우리 음식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 내력도 재밌다.

책은 한국인의 음식에 대한 설명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음식이 아니라 한국음식문화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국음식 자체보다는 그 한국음식을 먹었고, 지금도 먹고 있는 한국인의 삶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데 집중했다.

이 때문에 책은 '한국음식박물지'가 아니라 '한국음식문화박물지'로 읽힌다.

〈따비·1만4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뜨거운 삶을 살았던 그녀들과의 깊은 대화

'버지니아 울프와 밤을 새다'

이화경 지음

책을 읽는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대화한다고 하는 것이 옳다. 책을 보며 주인공을 만나고, 때론 위안을 받기 때문이다.

장편소설 '꾼'으로 알려진 광주 출신 작가 이화경(47)씨 역시 글쓰기와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면 선배 여작가가 쓴 고전에서 힘을 얻었다. 남성이 지배한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낸 그들의 삶 자체도 큰 자극제가 됐다.

그랬던 이화경씨가 제인 오스틴, 조르주 상드, 버지니아 울프, 프랑수아즈 사강 등 매혹과 지성을 두루 갖춘 여작가 10명에 대한 글을 모아 '버지니아 울프와 밤을 새다'를 발간했다.

이씨는 첫 장을 장식한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에 대해서는 '어떤 유혹에도 포기할 수 없는 자존감에 대해'라는 주제로 설명했다. 책의 주요 내용과 함께 오스틴이 어떤 상황에서 집필했고 살아갔는지 작가의 견해를 가미했다.

또 모범생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를 꿈꾼 실비아 플라스의 '벨 자', 자유로운 삶을 꿈꾼 사강의 '슬픔이여 안녕',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정치적 목소리를 낸 로자 룩셈부르크의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 등을 다뤘다.

19세기에서 21세기까지, 급변하는 역사의 한 가운데서 세상을 향해 주저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냈던 그녀들의 삶이 이야기 꾼의 입을 통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웅진지식하우스·1만3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시대 서민들의 자유로운 예술세계

'무명화가들의 반란, 민화'

정병모 지음

민화는 조선시대 대중문화다. 무명화가들은 서민의 진솔한 감정과 기발한 상상력이 담긴 민화를 통해 전통의 틀을 벗어던지고 친근하고 자유로운 서민의 정서를 화폭에 담았다.

민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온 정병모 경주대 문화재학과 교수가 서민들의 자유로운 예술세계가 담긴 민화를 통해 우리 선조의 당시 삶의 모습과 생각을 들여다본 '무명화가들의 반란, 민화'를 출간했다.

지난 10여 년간 국내 박물관뿐 아니라 전 세계 박물관, 개인 수집가 등을 찾아다니며 민화를 조사한 저자는 격조 낮은 속화로 폄하돼온 민화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그 속에 담긴 보석 같은 가치를 발견해낸다.

저자는 "격조 있고 세련된 화풍을 구사했지만 보이지 않는 전통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정통 화가들과는 달리, 무명의 서민 화가들은 권위와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작품세계를 펼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저자는 또 세계화에 성공한 일본의 풍경화인 우키요에도 에도 시대의 서민회화라며 일본의 대표적 문화상품으로 부상한 우키요에의 사례를 들면서 조선시대 민화 역시 세계적인 미술로 내세우기에 손색없다고 주장한다.

회화에서 민화로 변모해가는 과정과 함께 세계 각국에 있는 우리 민화 중 대표작으로 내세울 만한 작품을 풍성한 도판으로 소개해 사료적 가치도 충분하다.

〈다할미디어·2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제주도에 작은 찻집 '물고기'를 열었다

'cafe… 물고기 여름 이야기'

장선우 지음

영화 '경마장 가는 길'(1991년)과 '화엄경'(1993년) 등으로 1990년대 초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장선우 감독이 소설가로 변신, 장편 소설 'cafe… 물고기 여름 이야기'를 펴냈다.

'성냥팔이소녀의 재림'(2002년) 이후 영화 활동을 접은 장 감독은 6년 전 제주도로 내려가 카페 '물고기'를 열었다. 소설은 이 카페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허구의 이야기로, 지난해 4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쓴 15편의 일기 형식의 글로 꾸몄다.

소설에는 장 감독 자신과 동일시되는 주인공과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한다. 그녀는 그에게 연인처럼, 엄마처럼, 스승처럼 여겨진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가 임신을 하면서 사단이 벌어진다. 두 사람은 아이를 키워 자라게 할 것인지, 돌려보낼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뇌한다.

제주도에서 찻집을 열게 된 계기부터 아이폰을 사게 되는 과정 등 소소한 일상을 다루고 있는 환상적 이야기지만 소설 전체에 담은 메시지는 진중하다.

사람 사는 곳 어디에서나 생겨났다 사라지는 들끓는 욕망을 마치 작가 자신 그대로인 것처럼 소설 속 주인공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더불어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도 아우른다. 그런 의미에서 한 편의 우화 소설로도 읽힌다.

〈물고기북스·1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30년 바둑 한 길… 묵묵한 깨달음

'이창호의 부득탐승'

이창호 지음

국내외 바둑 타이틀 140회 획득, 100억여원의 상금을 벌어들인 승부사. 전주 출신 이창호 9단이 30년간 바둑 한 길을 걸어오면서 얻은 깨달음을 담은 에세이집 '이창호의 부득탐승(不得貪勝)'을 펴냈다.

이창호는 최연소 국내·세계 챔피언, 세계 6대 기전 그랜드슬램, 통산 타이틀 획득 140회, 국가대항전 승률 90%의 '영원한 캡틴' 등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들을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바둑의 전설이다.

절대적인 스승인 조훈현 스승의 문하에서 자신을 수련하고 세계의 강자들을 뛰어넘어 바둑천하를 제패한 그의 승부인생은 한 편의 무협소설과도 같다.

'돌부처'라는 별명에 어울리게 말을 아끼며 살아왔던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고, 실제 그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등 흥미로운 내용이 많다.

〈라이프맵·1만3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서양사, 흥미로운 이야기에 재미까지

'지식의 정원 서양사편'

남종국 외 지음

'중세 지중해 교역은 유럽은 어떻게 바꾸었을까?'를 비롯해, '민음 지식의 정원 서양사편' 문고본 시리즈 2차분이 최근 출간됐다. 이로써 예정한 전체 12권 중 8권이 나왔다.

이번에 출간된 네 권(5~8권)은 중세부터 근대까지 서양사에서 가장 흥미롭고 이야깃거리가 풍부한 시대를 조명한다.

르네상스시대 다양한 사상과 학문적 발전을 짚어본 장문석 영남대 교수의 '르네상스 시대 근대정신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와 기독교 세계의 분열을 정리한 황대현 목원대 교수의 '중세·근대 초 서양 기독교 세계는 왜 분열되었을까?', 그리고 절대 군주는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다룬 임승휘 선문대 교수의 '근대 유럽의 절대 군주는 어떻게 살았을까'가 포함됐다.

〈민음사·각권 6500~6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간

▲안녕 라자드=극작가이자 동화작가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배봉기 광주대 문창과 교수가 펴낸 청소년 성장소설집이다. 누나가 방글라데시인 남자 친구를 데려오면서 화목한 가정이 일그러지는 풍경을 그린 표제작을 비롯해 '삼촌과 사는 법' 등 총 5편의 소설이 실려 있다. 가족간의 갈등과 학업과 입시가 주는 극심한 스트레스, 용산 참사 등을 다뤄 청소년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문학과지성사·9000원〉

▲왕가의 전인적 공부법=역사서를 주로 집필해온 도현신씨가 지·덕·체를 고루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조선 왕가의 전인 교육법에 주목했다. 왕이 되기 위한 왕자들의 교육법 서연(書筵), 성군이 되기 위한 왕들의 공부인 경연(經筵), 왕실의 종친 관리를 위한 교육 종학(宗學) 등을 다뤘다. 저자는 "전 세계에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오백년 이상 문치국가를 이어온 조선 왕실의 핵심은 교육의 힘"이라고 말한다. 〈미다스북스·2만3000원〉

▲파격=중국철학을 전공한 임금자(뉴욕주립대 연구교수) 수녀가 1834~1847년에 일어난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적 사건을 뼈대로 하고, 문학적 진실로 살을 채워 넣은 소설. 양반 출신 거장 정시윤과 역관 김재연, 서양 성직자들과 조선 최초 신부 김대건 등이 등장하는 역사소설이자 종교소설이다. 〈다섯수레·1만6800원〉

▲사랑, 그 녀석=물질문명이나 사고의 왜곡으로 변질된 인간관계를 본질에 천착해온 한차현(41)씨의 신작 장편소설. 이제 중년에 접어든 90학번 주인공을 내세워 1990년대 당시의 연애문화와 풍속을 복원해냈다. 90학번이자 빨리 37세나 43세 정도로 건너뛰길 바라던 차현은 연상의 학교 선배 미림과 연인사이다. 하지만 차현은 얼마 지나지 않아 미림에게서 이별 통고를 받고 대학 문창반 동기 은원을 불러내 괴로움을 토로한다. 〈열림원·1만2500원〉

▲귀곡자 교양강의=동양철학을 전공한 심의용씨가 중국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 중 하나인 귀곡자가 현대인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펼쳐 보인다. 그가 쓴 '귀곡자'는 약은 술수를 늘어놓았다며 유가로부터 배척당했지만,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읽을 수 있다. 절대군주 하에서 신하의 유세술과 권모술수를 담은 '귀곡자'를 통해 세상의 약자들을 위한 수사학을 소개한다. 〈돌베개·1만2000원〉

▲리틀벳=베스트셀러 '나침반 리더십'의 저자 피터 심스가 쓴 리더십 관련 자기계발서. 구글의 래리 페이지,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등 혁신적 생각으로 세상을 변혁한 이들의 아이디어 개발과 실험 과정을 조명했다. 저자는 흔히 뛰어난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창한 개념을 잡아서 프로젝트를 그려나갈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들도 거칠고 조잡한 실험을 무수히 시도한 끝에 성공을 거뒀다고 말한다. 〈에코의서재·1만4500원〉

어린이 책꽂이

▲화산이 들썩들썩! 백두산이 폭발한다면?=백두산 화산 폭발의 증거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친절하게 설명한다. 어린이과학잡지 기자로 있는 최영준씨가 화산 전문가 인터뷰와 탐사 기록문, 역사적 자료 등을 바탕으로 백두산은 정말 폭발할지, 만약 폭발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 피해를 대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을 명쾌하게 파헤쳤다. 〈살림어린이·1만원〉

▲별별 물건들의 놀랍고 신기한 이야기=잘잘잘 옛이야기 마당 시리즈 6권. 구슬, 붓, 보자기, 지팡이, 항아리, 부채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소재로 등장하는 옛이야기를 담았다. 구수한 입말체 이야기가 바로 옆에서 이야기를 듣는 듯, 생생함과 재미를 전달한다. 〈미래i아이·1만2000원〉

▲반원의 도형 나라 모험=수학과 친해지는 책 시리즈 네번째 권, 주인공 '반원'이 평면 나라, 입체 나라, 공간 나라를 넘나들면서 겪는 모험을 통해 평면도형과 입체도형, 합동과 닮은꼴 등 헷갈리기 쉬운 도형들에 대해 익힐 수 있다. 각 도형에 얽힌 정보들을 자연스럽게 풀어내 아이들이 도형을 친숙하게 느끼도록 도와준다. 〈창비·1만1000원〉

▲불과 흙의 아이 변구, 개경에 가다=도자기와 대장경의 나라, 고려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강진의 '자기소'라는 도자기 마을을 배경으로 고려시대의 다양한 얘기와 역사 지식을 담았다. 청자를 만드는 마을에서 태어난 변구가 고향에서 수도인 개경으로 가출해 고려 청자 상인으로 성공한다는 내용이다. 도자기 제작 과정과 고려 수도 개경의 생생한 묘사가 호기심을 자극한다. 〈사계절·1만2800원〉

▲이이화 역사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천문학 이야기=우리나라 고유의 천문학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엮었다. 조상들은 물시계와 해시계를 만들어 시간을 계측했다. 또 중국이나 서양과 달리 독자적인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기록하기도 했다. 우주와 별과 관련된 신화와 전설도 소개했다. 〈파랑새·1만1000원〉